

'타향살이 고창출토 문화재 고향으로'

고창고인돌박물관, 고창지역 발굴 유물 106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그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고창출토 문화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21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처음으로 고창지역 발굴 유물 106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이번 유물 이관은 수장고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고인돌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기에 가능했다. 그간 고창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창을 떠나 국립전주박물관 등 타지에 보관될 수밖에 없었다. 이관 유물은 지난 2018년 사적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5차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청자합, 청자 잔탁 등 106점이다.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 후 국가귀속문화재의 이관은 고창의 문화재를 직접 소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권리와 동시에 유물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는 책임도 뒤따른다.

향후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된 반암리 요지 발굴조사를 비롯해 고창에서 발굴되는 중요 발굴유물



21일 고창고인돌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처음으로 고창지역 발굴 유물 106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 받았다.

들이 국가귀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별로 이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다"며 "앞으로 고창에서 발굴된 소중한 유물이 고창 품에서 자라고, 활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방수미



신진원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소리 판'

24일 신진원 수궁가 · 31일 방수미 춘향가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펼쳐지고 있는 '판소리마당-소리 판'이 오는 24일 수궁가와 31일 춘향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24일에 만날 판소리는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브랜드공연 주연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진원의 수궁가'로, 미산계 수궁가는 특유한 애원성과 씩씩한 수리성이 특징인 미산 박초월 명창이 완성한 바디로 서민적 정서가 잘 녹아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소리제이다.

31일은 판소리는 '방수미의 춘향가'로 방수

미 씨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올해의 젊은 예술가의 상, 2016년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대통령상, 2018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번 김세종제 춘향가는 김찬업-정응민-성우향의 전반부와 정응민-정권진-윤진철로 이어진 후반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왕기성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전국의 많은 소리꾼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치고,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판소리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1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1년도 제1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국립전주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국립전주박물관 전시회, 문화행사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관련 취재 등을 통해 박물관 콘텐츠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물관 현장을 취재하는 글·사진 취재팀과

박물관을 짧고 재밌게 표현하는 영상팀 각 4명씩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기자단 교육, 박물관 투어 등도 진행됐다.

홍진근 관장은 "미래세대에 전북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산을 알리고, 국립전주박물관을 관람객들의 휴게공간으로 소개하는 일에 기자단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초등학교 온라인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왕기성 원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초등학교들이 여를방학을 알차고 흥미롭게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국악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국악강좌는 코로나19로 대면수업 대신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7일~30일까지이다.

접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모집인원은 각 반별 선착순 16명이며, 남원시 관내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강좌기간은 8월 9일~8월 20일 2주간 10차시이며, 온라인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3~4학년은 오후 1시(춘향가 중 사랑가), 5~6학년은 오후 2시(수궁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에 수업을 진행하고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상을 수상한 국립민속국악원 창작단 김송과 정승희가 맡았다.

수강생에게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복제와 손선풍기를 각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10차시를 모두 이수하고 수업 중 미션을 완수할 시 수료증과 간식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수경 씨 '이백 장진주' 작품 대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기념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이선홍)가 제11회 기념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점의 작품이 출품, 그 가운데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23점, 입선 76점 등 총 108점의 입상작을 뽑았다.

대상에는 신수경씨의 '이백 장진주(李白 將進酒)'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박해순씨의 '목련-문인화', 이현정씨의 '당신은 참 좋은 사람-한글', 정희탄씨의 '삼익지우(三益之友)-전각'이 각각 뽑혔다.

대상 수상자인 신수경씨는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기쁨에 앞서 과거 이 상을 수상했던 서예가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무거운 무게가 느껴진다. 모든 상이 의미 있겠지만 이 상

은 저에게 정말 특별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황보근 심사위원장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주최하는 대회답게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특히 작품 크기가 일정하게 규격화 된 여타 공모전에 비해 소품작과 현대적 의미를 담아 내고자 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고전 연찬의 충실도와 현대적 변화, 서예의 대중화 및 세계화의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며 "탄탄한 고법첩의 수련 실력을 바탕으로 맑고 소박한 서풍을 표현함으로써 이 대회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범고창신'의 서예정신을 잘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 신수경 작가의 '李白 將進酒(이백 장진주)'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작은 비엔날레 기간인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달 간 전북에 술화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대상 신수경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